

대화의 비유창성 현상 고찰 — 화제 상정 여부와 관계 수준의 정도를 중심으로

서종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I. 문제제기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 IV. 연구결과 및 교육적 의의
- V. 마무리

I. 문제제기

대화는 사적이면서도 즉흥적 속성을 지니는 대표적인 담화로서 말하기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나아가 이러한 표현 욕구는 관계 욕구로 승화되면서 타자와의 진정한 소통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대화는 인간의 내밀한 심리적 과정의 표출 과정이면서 타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 과정에 드러나는 다양한 언어적, 준언어적 양상들은 다른 담화들과는 차별적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화에서는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정제되어 표현되기보다는 부지불식중에 내면의 다양한 무의식적 사고의 파편들이 얹히고 설킷 드러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말더듬이나 주저거림, 막힘 등의 양상을 수반하며, 즉흥적 말하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시킨다.

대화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지만 대화의 가장 기본 틀은 화자들 간에 공통기반(common ground)을 마련하고

정보간격(information gap)을 줄여나가는 데 있다. 이는 사적 자리이든 공적 자리이든 크게 상관이 없고, 대화의 화제가 무엇이든지 혹은 대화자 간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대화의 기저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화의 주요한 내용인 화제가 미리 마련되어 있다거나 대화 참여자들 간의 친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대화를 원만하게 전개하거나 진행해 나가는 데 유용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화 전개의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화제의 상정과 높은 친밀 관계는 대화 참여자들 간의 공통기반을 마련하고 정보간격을 줄여나가는 데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고는 대화의 전개 과정을 공통기반 마련하기와 정보간격 줄여나가기라는 토대 위에 대화의 화제 상정 여부와 친교 관계의 수준이 대화의 전개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공통기반과 정보간격이라는 추상적 틀 위에서 표면적으로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 대화의 언어적, 준언어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면적 요인들이 화제 및 친교 관계와 결부되어 대화를 전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는 다른 담화와 달리 일정한 각본에 의해 전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즉흥성이 본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화를 막힘없이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이른바 발화의 유창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이 말하기의 본질적인 측면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화는 말하기의 심리적 과정과 참여자들 간의 미시 사회학적 관계 부면을 살피는 데 최적의 담화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화제 상정 여부와 친교 관계의 수준에 따른 대화의 비유창성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¹⁾ 이는 대화 전개 과정에 발생

1) 말하기에서 비유창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발화의 소리나 의미가 산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가 청자나 청중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소통 결과

하는 더듬거림, 막힘, 주저거림과 관련되는 다양한 언어적, 준언어적 측면을 고찰함으로써 대화가 지니는 또 다른 측면의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말하기 교육에서 대화 담화에 대한 규범 중심의 일관된 지도 방법에도 일정 부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화의 화제 상정 여부 및 친교 관계에 따라 비유창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현상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고찰한다. 직관적으로 화제가 상정되고 친교 관계가 있다는 점은 공통기반의 마련으로 인하여 대화에 참여한 화자들 간의 정보간격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개의 유창성 측면에서 수월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화제의 상정이 일정한 과제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화 전개를 유창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즉 본고는 이러한 화제 상정 및 친교 관계에 따르는 대화의 다양한 비유창성 현상을 살피고, 이를 말하기 교육에서 어떻게 교육 내용으로 환원시킬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는 학교 현장의 말하기 교육에서 대화라는 담화가 제대로 교육되지 못하고 있거나 되고 있더라도 대화의 생태학적 환경이 결여된 일종의 대화 규범에만 초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문제 인식을 초점을 두었다.

를 넣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화에서는 비유창성 현상이 적절하게 발생해야 이해를 촉진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Brennan & Schober(2001)에서는 삽입, 간투사, 적절한 쉼 등이 오히려 이해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연스러운 발화나 대화에서의 비유창성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군더더기가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즉 발화의 비유창성 문제는 화자의 발화 산출과 청자의 이해 측면을 모두 아울러야 그 면모를 제대로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동의하면서 우선적으로 대화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비유창성 유형 파악에 연구의 초점이 있다. 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유형들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청자와의 교섭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대부분의 대화는 화자들 간의 소통과 공감이라는 상호교섭 관계를 지향한다. 따라서 준비되고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말하기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감정이나 반응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사적 담화이다. 아울러 여러 청중을 앞에 두고 하는 일방적인 혼자 말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화자 간 순서 교대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발화 겹침이나 발화의 주도권 쟁취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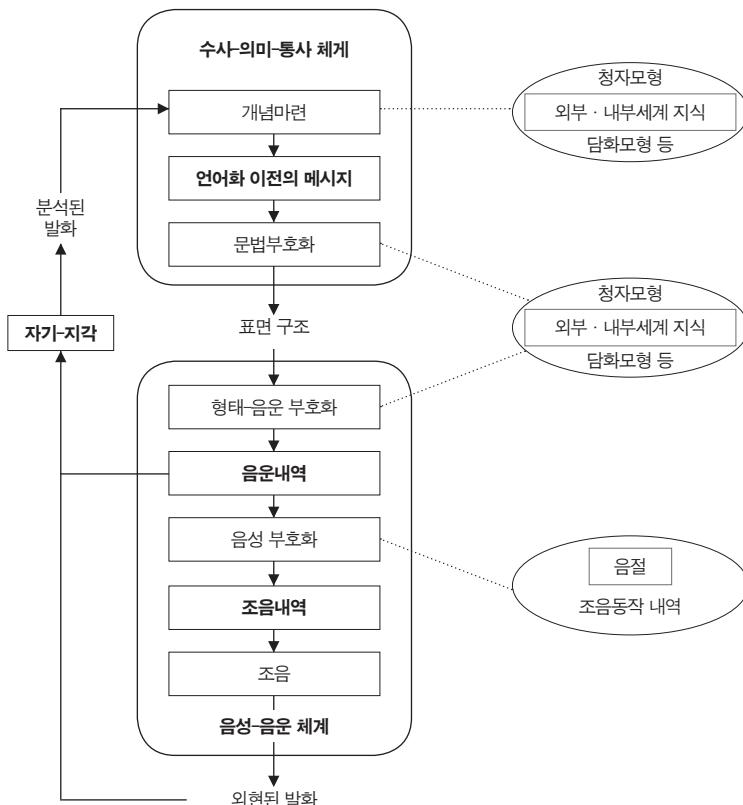
즉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비유창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일방향 중심의 혼자 말하기에서 발생하는 비유창성과는 다를 수 있다. 물론 일정한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나 연설에서도 청중의 반응이나 태도에 따라 화자의 말하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유창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는 다른 화자와의 실시간의 상호작용적 관계 속에서 실시간으로 발화를 산출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국면의 비유창성과 결부될 수 있다.

말하기에 드러난 비유창성, 일종의 더듬거림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특히 언어 병리학에서는 이를 일종의 장애 현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치료 방식을 연구해 오고 있다. 따라서 말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유창성은 치료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병적 현상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말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유창성 현상은 조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조음과 청각에 아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정상인도 말하기 유창성에 관해서는 일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말하기 불안에 수반하는 다양한 비유창성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심각한 소통상의 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화에서도 발생

하며, 심한 경우는 불안을 수반한 소외의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비유창성은 비단 조음 장애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말하기 계획 단계에서 자신의 발화를 되짚어보는 자기-점검 단계에까지 모두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상인의 말하기에서 비유창성은 말하기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Levelt(1999: 87)는 비유창성의 문제를 말하기의 정보 처리 단계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말하기의 청사진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Levelt는 말하기를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고, 마지막에 화자의 재귀적 과정을 전 과정에 관여되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 논의에서는 문법 부호화 과정의 레마(Lemma, 일종의 낱말의 통사·의미 값) 선정이 핵심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레마의 선정과 조음 과정까지를 정보 처리의 구체적인 단계로 잘 구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이러한 모든 단계에서 비유창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언어 병리학에서의 비유창성은 주로 조음 단계의 외현적 결과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유창성은 이러한 외적 조음 단계에만 초점을 둘 수 없다. 왜냐하면 정상인들의 비유창성은 조음 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기보다는 머릿속 과정에서부터 외현된 발화의 재귀적 과정까지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그럼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말할 내용의 개념 열개 마련과 낱말 중심의 레마 형성이 이루어진다. 이는 낱말 중심의 레마가 일정한 통사 중심의 순서와 층위에 기반한 표면구조를 통해 두 번째 단계인 음성, 음운 체계 부서로 넘어간다. 즉 이러한 정보 처리 기반의 말하기 과정의 세분화에 따라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유창성 현상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말하기 과정은 대화 담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기-지각의 재귀적 과정이 주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데, 이는 대화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실시간으로 자각하고, 이를 끊임없이 수정해 가는 현상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2) 심홍임(2005)에서는 이를 전형적 비유창성(정상적 비유창성)과 비전형적 비유창성(비정상적 비유창성)으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는데, 전자는 정상인들에게서 주로 드러나는 것으로 단어 단위보다 큰 단위에서, 후자는 유창성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테, 단어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즉 정상인들과 장애인들 간에 발생하는 말하기의 비유창성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Ryan(2001)에서도 정상적 비유창성과 병리적 비유창성으로 구분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삽입, 수정, 미완성구, 구 반복으로 후자는 반복, 연장, 폐쇄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도 정상적 비유창성의 범위가 훨씬 넓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수형·전희숙·권도하(2012)에서는 담화 유형에 따른 비유창성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서술 담화와 설명 담화에 드러나는 다양한 비유창성 현상을 고찰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학령 전 아동에 국한되어 있으며, 서술 담화와 설명 담화의 말뭉치 자료의 음성 전사 시간이 비슷하지 않다는 점에서 담화 유형 별 비유창성 연구로서 한계가 따른다.

McCarthy(1998/2010)와 Anderson, Brown, Shillcock, & Yule(1984/2014)는 모국어 교육의 입말 말하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얼개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의 의의가 크다. 특히 전자는 담화 중심에서 입말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실제 말뭉치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입말 과제 중심의 말하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말하기 비유창성의 문제도 담화 교육의 차원에서 폭넓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다루어진 입말 자료가 영어 말뭉치 자료에 국한된 점이 한계로 드러난다.

김태경·이필영(2007)에서는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상 대화에 드러나는 말더듬을 실증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참고의 의의가 크다. 다만 제공된 대화 담화의 생태학적 환경이나 맥락, 화자들 간의 관계, 대화 화제 등이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화 담화의 비유창성을 정밀하게 고찰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노출한다.

남길임(2011ㄱ; 2011ㄴ)에서는 사적독백, 학술강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비유창성 현상을 세종 구어 말뭉치를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전사말뭉치와 음성말뭉치 간에 드러날 수 있는 차이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지만, 다양한 담화에서 드러날 수 있는 비유창성 현상이 차별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시론적으로 나마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지은·권도하(2015)에서는 초등학교 모든 학령의 정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유창성 발생 빈도와 유형을 다루고 있다. 모든 학령의 비유창성 유

형에서 수정과 삽입이 높은 비율로 드러난다는 점과 학령이 높아질수록 단어부분반복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참고의 의의가 있다. 다만 그림 이야기 과제라는 다소 제한된 말하기 유형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신명선·안종복·남현욱·권도하(2005)는 정상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혼자 말하기에 드러난 비유창성의 유형을 고찰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특히 정상인과 장애인 간에 차별화될 수 있는 비유창성 유형의 파악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혼자 말하기라는 제한된 담화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비유창성의 유형을 살펴보는 데 일독의 의의가 있다.

신문자·한숙자(2003)에서도 생태학적 환경이 고려되지 못한 읽기와 말하기 환경에서 제한적이나마 정상적인 화자를 대상으로 비유창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 특히 여기에서는 읽기와 말하기 속도의 문제를 유창성과 결부시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다만 실험 설계가 지나치게 인위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따른다.

심홍임(2005)에서는 정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말하기와 읽기에서의 비유창성 현상을 실험적으로 밝혀내고 있어 참고가 된다. ‘주저, 삽입, 수정, 미완성, 구 반복, 단어 반복, 음절 반복, 소리 반복, 연장, 막힘’ 등으로 비유창성을 구분하고, 정상 성인의 즉흥적 말하기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비유창성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실험 조건이 제약적이며 말하거나 읽기의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Heather, Bortfeld, Sivia, Leon, Jonthan, & Bloom et al.(2001)에서는 관계, 나이, 성, 역할, 화제 등의 구분에 따른 비유창성의 발생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Brennan & Schober(2001)에서는 청자 관점에서 화자의 비유창한 부분을 어떻게 내용과 형식상으로 처리하는지를 다루고 있고, Licky(1994)는 자연스러운 발화에 드러나는 비유창성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다만 이들 논의들은 주로 특정 언어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

에서 참고의 의의가 제한된다.

전반적으로 국내의 말하기 비유창성과 관련된 논의들은 진단과 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 병리학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내 논의들은 정상적인 학습자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비유창성 관련 문헌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말하기 교육적 관점에서 비유창성에 대한 인식 범위가 전체적으로 폭넓게 다루어져 지지 못했다는 점과도 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말하기의 조음 장애에 국한된 비유창성이 아닌 담화 차원에서의 비유창성의 문제로 그 인식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1. 연구방법

본고는 대화라는 담화에 드러나는 비유창성 현상을 살피는 데 초점이 있다. 대화 화제의 상정 여부와 대화 참여자들 간 친교 관계의 수준에 따라 드러나는 다양한 비유창성 현상을 고찰하고, 이러한 화제 상정 여부와 친교 관계의 수준이 대화 전개 과정에 발생하는 비유창성 현상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화에서 화제와 친교 관계는 참여자들 간에 대화를 전개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일상의 사적 대화에서는 이러한 화제가 참여자들 간에 분명하게 인지되거나 부각되기 어렵다. 따라서 일상의 대화에 구체적인 화제가 주어진다면, 이는 친교 관계를 넘어서 과제 중심의 대화, 이른바 정보 전달 중심의 대화를 지향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즉 화제가 과제로 인식될 수 있고, 이를 중심으로 참여자들 간에 관계를 넘어서 화제와 관련된 정보를 중

심으로 대화가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화제가 대화의 전개를 유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지만, 화제가 과제로 수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전개해야 한다는 참여자들의 인지적 부담감이 대화를 비유창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화제가 대화 전개의 유창성이나 비유창성에 이중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화에 드러나는 비유창성의 유형과 범위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비유창성의 범위를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에 따라 비유창성의 개념 정의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말하기에 드러나는 다양한 비유창성 현상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말하기의 비유창성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남길임(2011)에서는 비유창성 현상의 유형을 형식과 기능 범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형식 범주로 삽입, 대치, 도치표현을 제시하고 있고, 기능 범주는 형식 범주에 속하는 하위 범주로 담화표지, 수정, 재시작, 반복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비유창성 현상의 유형을 세 가지 종류의 담화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다.

말하기에서의 비유창성은 담화에 따라 그 발생 모습이나 유형이 차별화 될 수 있다. 특히 면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대화의 경우는 혼자 말하기와는 다르게 순서교대에 따른 발화 겹침이 주된 양상으로 발생한다. 이는 다른 담화와 다르게 대화가 지니는 차별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화 겹침의 발생 현상은 대화 전개를 유창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대화에서의 비유창성 현상의 유형을 간투사, 도치, 반복, 발화 겹침, 삽입, 수정, 쉼 등으로 구분한다.³⁾ 쉼(pause)

3) 비유창성의 유형에 대해서는 각주2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상적 비유창성과 병리적 비유창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정상인과 조음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구

의 경우는 연구자에 따라 비유창성 현상의 유형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가령 대화에 참여한 화자가 의도적으로 ‘쉼’을 대화상의 일정한 공백으로 사용하면 때로는 대화 전개의 유창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가령 심사숙고의 과정에 수반되는 ‘쉼’은 화제를 더 깊이 있게 이끌고 가려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되거나 대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비유창성 유형에서 제외된다.⁴⁾

전체적인 연구 과정은 대화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화라는 담화는 기본적으로 사적이면서 즉흥적인 속성을 지니므로 그것의 생태학적 환경을 제대로 고려해서 수집하다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나아가 자료가 수집되더라도 대화 참여자들 간에 오고가는 사적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연구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감안한 전체적인 연구 과정은 <표 1>과 같다.

분하는데, 가령 전자의 경우는 삽입, 수정, 미완성 구, 구 반복, 후자의 경우는 단어전체반복, 어절전체반복, 음소반복, 음절반복 등으로 제시된다(신명선·안종복·남현우·권도하, 2005: 55).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정상인과 장애인 간에 뚜렷하게 구분되기는 어렵다. 가령 병리적 비유창성의 유형도 빈도수에서 차이는 있지만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담화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병리적 비유창성의 경우는 조음 장애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화 상에서 간헐적이기보다는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미시적인 음성, 음운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조음 장애가 없는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병리적 측면의 비유창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상과 병리적 측면의 비유창성 구분은 따르지 않았다.

- 4) 본고에서는 전사 과정에서 ‘쉼’의 경우는 1초를 구분 경계로 하여, 1초 이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초 이상의 경우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만 비유창성의 대상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클락(1996/2009)에서는 이를 ‘1초의 한계’라고 불렀다. 즉 쉼에서 1초 이상과 이하는 그 의도가 다르게 사용되고 이는 상이한 표지로 표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모둠별로 구성한 대화 촬영본을 실제로 전사 작업을 하면서 쉼에 대한 의도성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과제로 제출된 촬영본과 전사본을 연구자와 교양 수업 담당 선생님들이 교차로 확인하였다.

〈표 1〉 연구개관

	화제 상정(×)	화제 상정(○)
자료 수집 기간	2017.03~2017.06	2017.09~2017.12
연구 대상 ⁵⁾	사범대학 국어교육과(2학년) // 교양과목 수강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3학년) // 교양과목 수강자
전사 자료	10개 // 10개	10개 // 10개
참여 모둠	10모둠 // 10모둠	10모둠 // 10모둠
전사 방식	형태 전사	형태 전사
모둠 인원	3명	3명
대화 시간	4~5분	4~5분

대화 자료는 21세기 세종 말뭉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본고가 화제 상정 유무와 대화 참여자들 간 친교 관계의 수준에 따른 대화의 비유창성 빈도와 유형을 고찰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화제를 상정 유무와 친교 관계를 중심으로 각 집단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화제 상정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 3학년 및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각 집단은 친교 관계에 따라 그 수준이 높은 집단이 국어교육과 대상자들이고 친교 관계의 수준이 형성되지 않은 집단이 교양과목 대상자들이다.

화제를 상정하지 않은 집단은 사전에 화제를 정하지 않고, 대화를 전개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제를 상정한 집단은 화제가 단순한 일화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 과제 지향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사전에 화제를 참여 학습자들이 협의에 의해 결정하였다. 정해진 화제는 모든 모둠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화제는 ‘수업 시간 중에 잊은 화장실 이용이나 음료 마시기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교육적인 관

5) 편의상 이후 명칭을 화제를 상정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는 국교A, 교양A로, 화제를 상정한 집단의 경우는 국교B, 교양B로 한다.

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모둠 간 대화를 통해 자유스럽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었다.⁶⁾

참여 대상자는 학기별로 국어교육과 및 교양과목 수강자 각각 30여명 이상이 대상이 되었다. 즉 한 한기에 60명 이상의 학습자가 3명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대화 결과물을 구성하였다. 실제로 학기별 전사 자료는 20개가 약간 넘었지만, 대화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참여자가 불성실하게 참여한 모둠의 대화 결과물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기별로 국어교육과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10개, 교양 수업 대상자들로부터 10개씩을 수집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과정은 참여 학습자들에게 과제 형식으로 주어졌다. 즉 대화를 촬영하고 이를 전사한 모든 결과물을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전사는 형태 전사를 기본으로 하였고, 다양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도 일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화 결과물과 전사본은 본 연구자와 각 학기별 교양 수업을 진행한 국어학 박사 출신의 강사들이 교차로 점검하였다.

대화를 나눈 시간은 엄격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길 경우는 전사나 대화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4분~5분 정도로 제한하였다. 다만 대화가 너무 짧게 끝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 4분 이내로 할 경우는 과제 점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짧게는 3분 59초에서 길게는 5분 32초대에 대화가 이루어졌다.

6) 대화는 두 사람이 이상이 서로 상호적인 언어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 영역의 범위가 매우 넓다. 때에 따라서는 모든 담화의 상위 인지적 속성을 지니기도 한다. 특히 화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속성이나 영역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화제의 결정은 일상 대화의 속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화제를 결정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실제 대화 과정에서 주로 연애, 대학 생활, 아르바이트, 향후 진로와 취업과 같은 자신의 주변 생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외는 차별적인 화제 선정이 요구되었다.

2. 연구가설

연구가설은 두 가지로 상정된다. 첫 번째는 대화 참여자들 간 친교 관계의 수준에 따른 비유창성 발생 빈도와 유형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화제 상정 유무에 따른 비유창성 발생 빈도와 유형에 대한 것이다. 즉 두 가지 가설은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들 간의 관계와 대화를 전개해 가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화제의 상정 유무에 따라 비유창성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성되었다.

가설1: 친교 관계의 수준에 따른 비유창성 발생 빈도와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참여자들 간 친교 관계의 수준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국어교육과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를바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 반면에 교양수업 대상자들은 대다수 서로 간에 공유된 배경지식이 없는, 즉 서로 간 친교 관계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친교 관계의 수준은 대화의 전개 양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친교 관계가 있는 참여자들은 대화 전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낯선 이들 간의 대화에서는 친교 관계가 있는 참여자들에 비해 서로 간의 공통기반을 마련하고 정보간격을 줄여나가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들 간의 대화는 화제 중심의 심도 있는 전개로 이어지기보다는 대화의 변죽만 울리다 끝날 가능성이 있다.

말하기 과정에서 비유창성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변인들이 있다. 특히 과제의 난이도, 낯설거나 추상적인 화제, 청자나 청중에 대한 심리적 부

담, 짧은 발화보다는 긴 발화, 대화 상황이나 의사소통의 압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화에서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이러한 비유창성을 초래하는 주된 변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은 대화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 과정상에서 생겨날 수 있는 체면 (face) 손상의 두려움에서도 기인한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친교 관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는 공통기반을 마련하고 정보간격을 좁혀가는 데 있어서 비유창성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친교 관계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교양수업 대상자들 간의 대화에서는 이러한 대화 단절이나 중단과 관련된 의도하지 않은 간투사, 발화 겹침, 쉼⁷⁾ 등의 허사 중심의 비유창성 발생이 잦을 것이다.

가설2: 화제 상정 여부에 따른 비유창성 발생 빈도와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화 화제의 상정 유무에 따라서도 비유창성의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령 대화가 전개되기 전에 화제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들은 미리 대화의 내용을 가늠해 봄에 따라 상대방의 발화에 따라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들이 화제에 따른 대화의 전체 일개를 미리 그려볼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7) ‘쉼’은 경우는 ‘의도하지 않은 쉼’과 ‘의도한 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의도한 쉼’은 대화를 전개하는 데 ‘의도하지 않은 쉼’과는 그 속성이 다르게 작용할 것이다. 가령 Tannen(2007)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화자의 성격에 따라 ‘심사숙고형’과 ‘적극 관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도한 쉼’은 경우는 심사숙고형의 화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속성의 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쉼의 발생이 있다고 대화가 비유창하게 전개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쉼 없이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창한 대화 참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전사본과 촬영본을 통해 이러한 쉼의 유형을 분석하고 구분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쉼’만을 비유창성 유형의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화제는 대화가 전개됨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대화가 전개되기 전에 화제를 상정해 두고 그것에 대하여 일정한 고민의 시간을 갖는다면 심각한 대화 전개상의 단절이나 중단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화제를 상정한 대화는 그렇지 않은 대화보다는 대화 전개상의 비유창한 측면과 관련된 언어적, 준언어적 표현 등의 발생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 발생 빈도와는 다르게 발생 유형은 화제 상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령 화제를 상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화제와 관련된 내용상의 비유창성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생에 수반되는 비유창성의 유형은 삽입, 반복 등 화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내용 중심의 오류나 실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⁸⁾ 이는 화제라는 것이 대화의 전체 틀에서는 비유창성을 감소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제 대화 전개 과정에서는 지엽적으로 비유창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삽입이나 반복 등은 화제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사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능상으로 발생하는 허사의 경우는 화제 상정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 중심의 비유창성 유형은 화제의 발생과 조정, 그리고 전개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화제와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남길임(2011)에서는 2만 어절 정도의 소량의 말뭉치를 분석하면서 내용 중심의 삽입어 구가 일상 대화보다 강의형 말뭉치에서 훨씬 많이 발견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의 속성이 강한 담화표지, 이른바 간투사는 일상 대화에서 그 비중이 훨씬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 참고가 된다. 즉 화제 상정은 대화의 내용을 일관되게 전개할 수 있는 주요한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내용 중심의 삽입이나 반복, 수정 등의 비유창성 현상은 화제를 상정한 대화에서 그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비유창성 발생 유형에서 반복과 삽입만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도치와 수정의 경우는 그 발생 빈도가 대체적으로 미미하고, 반복과 삽입이 주된 유형으로 다루어져왔기 때문이다.

IV. 연구결과 및 교육적 의의

1.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 열개에 따라 진행된다. 연구가설은 크게 화자들 간의 관계 수준과 화제 상정 유무에 따라 구분되었다. 관계는 화자들 간의 친교 관계의 수준이 높고 낮은지를 말하며, 화제는 대화를 전개하기 이전에 화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집단 간 비교를 위한 전체 열개는 <표 2>와 같다.

<표 2> 집단 간 비교를 위한 열개

가설과 변수		집단	비교 집단
가설1	관계(↑ - ↓)	화제(×)	①: 국교A - 교양A
	"	화제(○)	②: 국교B - 교양B
가설2	화제(× - ○)	관계(↑)	③: 국교A - 국교B
	"	관계(↓)	④: 교양A - 교양B

<표 2>에 제시된 비교 집단의 ‘① → ④’의 순서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먼저 대화 참여자들 간 친교 관계의 수준에 따른 비유창성의 발생 빈도와 유형에 대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국어교육과와 교양수업 대상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되고, 각 집단에 10개의 모둠이 편성되었다. 먼저 화제를 상정하지 않으면서 친교 관계에서 수준 차이가 있는 ①에 대한 논의 결과이다.

〈표 3〉 '국교A – 교양A' 집단에 대한 비유창성 양상 결과

모둠	국교A								교양A							
	간투	도치	반복	겹침	삽입	수정	쉼	합계	간투	도치	반복	겹침	삽입	수정	쉼	합계
1	23	6	9	13	11	3	6	71	17	2	5	13	10	3	11	61
2	30	9	7	22	9	4	3	84	15	3	6	9	16	2	8	59
3	17	6	7	11	11	2	8	62	15	4	9	10	13	4	11	66
4	23	4	28	21	10	1	10	97	12	3	8	11	9	2	9	54
5	18	7	18	21	11	4	7	86	13	1	6	8	10	2	9	49
6	20	4	9	7	13	5	4	62	16	2	5	9	14	1	16	63
7	16	3	14	18	17	5	4	77	14	4	7	9	8	2	13	57
8	25	7	11	9	21	1	8	82	15	3	6	14	11	5	11	65
9	23	2	14	13	15	2	10	79	12	1	11	9	13	4	12	62
10	19	9	10	17	17	4	9	85	11	2	9	8	11	8	7	56
평균	21.4	5.7	12.7	15.2	13.5	3.1	6.9	78.5	14.4	2.5	7.3	10	11.4	3.3	10.3	59.2
편차	4.2	2.4	6.4	5.3	3.9	1.5	2.6	11.0	2.2	1.1	1.9	2	2.5	2.1	2.6	4.5

친교 관계의 수준에 따른 비유창성의 발생 빈도와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1은 화제를 상정하지 않은 경우와 화제를 상정한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화제를 상정하지 않은 경우는 〈표 3〉에 드러난 바와 같이 친교 관계가 높다고 상정된 국교A 집단에서 비유창성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표 3〉에 드러난 결과만으로는 가설에서 상정한 내용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가설에서는 낯선 이들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라든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화 화제를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압박 심리가 작용하여 대화 참여자들 간 친교 관계 형성이 안 된 모둠에서 대화가 유창하게 전개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결과상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이 비유창성을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

는다.

이는 비유창성 발생 유형도 마찬가지다. 대화 단절을 메우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간투사나 쉼, 그리고 대화 차례(turn taking)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발화 겹침 등이 친교 관계의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쉼’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못하였다. 즉 대화라는 담화에서 비유창성의 발생 유형도 반드시 친교 관계의 수준과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생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듯하다.

결론적으로 가설에서 상정한 내용과는 다르게 친교 관계가 높다고 상정된 집단에서 비유창성의 빈도가 높게 드러난다는 점은 대화 참여자들의 활발한 대화 참여와 일정 부분 관련될 수 있다. 즉 대화 과정에서 친교 관계의 수준이 높은 화자들 간의 소통 의도가 표면적으로 다양하게 부딪히면서 비유창성 현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⁹⁾ 다음은 교양A 대상자들로부터 나온 대화의 일부이다.

1. A: 어(간투) 우리 이렇게 처음 봤는데 일단(삽입) 내 이름부터 얘기해줄게. 내 이름은 ○○이고, 과는 영어? 영어교육과야(반복). 너는?

2. B: 와~~~(

3. A: 크크크 이런 거 하지마.

4. B: 크크크. 알겠어.

5. A: 너는?

6. B: 아(간투) 여기 있네.++(쉼) 내가 이걸 밝히....심리학부 다니는 ○○○이라 고 해.

9) 말하기에서의 비유창성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아울러 제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입말을 입밀답게 해 주는 주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대화에서는 이러한 점이 더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국어교육 틀에서 말하기의 비유창성은 조음 장애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입말의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다루어져야 할 측면도 있다.

7. A: 아(간투) 중학교 친구야?
8. B: 어.(간투)
9. A: 아(간투) 그럼 고향이 같은 거야?
10. B: 그래.
11. A: 우와(간투) 대박

(중략)

46. C: 어차피 내년이면 고3이니까, 놀지도 못하는데++(쉼) 지금 많이 놀와 많아 놀아와 라면서 술 쪘었다.
47. A: 우와(간투) 진짜 부럽다. 아니(삽입) 저래야 정상이잖아. 원래는(도치)
48. C: 근데 나, 우리 반은 담임이 그거였단 말이야. 학생 그 학년++(쉼)그(반복) 뭐라해야 되지.
49. A: 학년부장?
50. C: 어(간투) 그래. *그런 거*. 그런거여(반복) 가지고 뭐(삽입) 자기 일 하는 거 바빠 가지고 우리랑 많이 못 놀았다. 담임.
51. A: *아*(간투)~맞아 학년부장하면 그렇지 뭐.
52. B: 난 엄청 친한데..
53. A: 학년부장, 쌤 반이었어?
54. B: 2, 3학년 때 담임이 학년부장 둘 다 하고 똑같이 담임했거든
55. A: 아(간투)~ 진짜?
56. B: 같은 사람이
57. A: 똑같은 사람, 안 힘들어, 똑같은 사람 힘들던데 나는(도치)
58. B: 아(간투) 근데 뭐(삽입) 이미 1년 동안 볼 거 다 봤으니까

(하략)

위의 대화 말뭉치는 교양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A와 C는 같은 과이고 B와 C는 중학교 동창으로 구성된 모둠이다. 따라서 일

부 화자들만 친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화 시작에서는 서로 낯선 이들끼리 정보 교환을 통해 서로를 탐색해 가고 있다. 중략 이후에는 연애 이야기, 고등학교 생활 등 다양한 화제가 수시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간투사, 쉽, 도치, 삽입, 반복, 발화 겹침 등 다양한 비유창성 유형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 간 정확한 비교 기준을 위해 대화 시간과 어절 수를 제시한다. 먼저 대화 시간은 국어교육 대상자 모둠의 경우는 4분 05초에서 5분 31초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교양수업 대상자의 경우는 4분 08초에서 5분 11초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정 시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어절 수도 차이를 보였다.¹⁰⁾ 집단과 모둠별 대화 시간과 어절 수는 <표 4>와 같다.

<표 4> '국교A – 교양A' 집단의 대화 시간과 어절 수

	국교A		교양A	
	대화 시간	어절수	대화 시간	어절 수
1	4분05초	431	5분11초	515
2	5분14초	531	4분19초	430
3	4분59초	514	4분09초	414
4	5분31초	565	4분39초	454
5	4분27초	479	4분11초	409
6	4분26초	465	4분49초	478
7	4분40초	511	4분15초	422
8	4분51초	510	4분22초	440
9	5분10초	553	4분27초	439
10	5분06초	545	4분08초	430
평균	4분51초	510.4	4분27초	443.1

10) 발화 비유창성의 양적 분석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음절, 단어, 어절 등이 주요한 단위가 된다. 본고에서는 입말이 글말과 달리 문법 단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형태 전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절을 주요한 분석 단위로 삼았다. 더욱더 정밀하고 미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음성과 음운, 나이가 담화와 화용까지 아우르는 분석이 적합하나, 본고가 입말 전사의 문제를 다룬 본격적인 논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형태 전사 기반의 어절을 분석 단위로 삼는다.

〈표 4〉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친교 관계의 수준이 높다고 상정된 국교 A 집단의 대화 시간이 길며 이에 따른 어절 수도 많다. 물론 대화에서의 비유창성 발생이 대화 시간이나 어절 수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쉼’이나 발화 겹침에서의 일시적 대화 단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유창성 발생 유형은 실제 발화의 명시적 산출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화 시간에 따른 어절 수는 비유창성 발생의 척도를 가늠하는 데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발화에서 비유창성 비율을 상정할 때, 발화한 단어가 5% 이상일 때를 말을 더듬는 것으로 판단하거나(Bloodstein, 1987) 혹은 정상 화자와 말을 더듬는 화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5%이상의 비유창성 비율로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Perkins, 1984). 또한 Fox Tree(1995: 709)에서는 전체 발화의 2%에서 26% 정도가 비유창성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이들 연구들이 대부분 영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고의 조사 결과에서도 대략적으로 10%~20% 정도의 비유창성 빈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비유창성 발생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통상의 비유창성 발생 빈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발화 겹침과 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고의 비유창성 발생 빈도가 다소 높게 형성된 점은 정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화라는 담화의 비유창성 발생 빈도와 유형은 혼자 말하기에서의 비유창성과는 발생 빈도나 유형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의 〈표 4〉에서 드러난 결과만으로 두 집단 간의 비유창성 발생 빈도와 유형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특히 대화 시간과 어절 수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비교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당 평균 어절 수를 산정하여 두 집단 간 비교 기준으로 삼고, t검증을 통해 두 집단 간 통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값

을 얻을 수 있다.¹¹⁾

t-검정: 등분산 가정 두 집단		
	합계	합계
평균	78.5	62.5285141
분산	120.7222222	31.1875264
관측수	10	10
공동(Pooled) 분산	75.95487429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18	
t 통계량	4.097816446	
P(T<=t) 단측 검정	0.000337747	
t 기각치 단측 검정	1.734063607	
P(T<=t) 양측 검정	0.000675495	
t 기각치 양측 검정	2.10092204	

〈그림 2〉 ‘국교A – 교양A’ 집단 간 통계 검증 결과

즉 ‘두 집단 간 비유창성 발생 빈도에는 차이가 없다’를 귀무가설로 두고, 두 집단 간 t검증을 하면 통계량은 〈그림 2〉에서와 같이 ‘4.09’로 산출되어 두 집단 간에 평균값은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연구 가설에서 상정한 내용과는 정반대로 친교 관계가 높은 국교A 집단의 비유창성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비유창성 발생 유형에서도 전체 발생 빈도와 큰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국교A 집단의 발생 빈도가 높다. 다만 ‘쉼’의 경우는 가설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유의미한 수치로 친교 관계의 수준이 낮은 교양A 집단의 수치가 높다.¹²⁾ 다음은 화제를 상정했지만, 친교 관계의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11) ‘국교A – 교양A’ 집단의 분당 평균 어절 수는 다음과 같다.

	국교A	교양A
평균 어절 수(분당)	105.2	99.6

12) 비유창성 발생 유형도 전체 빈도와 같은 맥락 선상에서 통계 검증이 가능하다. ‘쉼’만을 두고 검증한 결과 ‘-3.41’의 통계량이 산출된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쉼’의 발생 빈도는 차

있는 집단 간의 비유창성 결과이다.

〈표 5〉 '국교B – 교양B' 집단에 대한 비유창성 양상 결과

모둠	국교B								교양B							
	간투	도치	반복	겹침	삽입	수정	쉼	합계	간투	도치	반복	겹침	삽입	수정	쉼	합계
1	23	4	14	19	13	5	9	87	23	2	13	15	17	4	15	89
2	22	6	26	12	16	1	7	90	15	5	10	9	16	2	11	68
3	16	2	17	25	18	7	10	95	18	2	9	11	18	5	17	80
4	25	2	18	21	16	4	13	99	14	3	17	14	14	6	14	82
5	21	2	16	24	14	3	6	86	11	3	14	13	12	5	11	69
6	22	5	25	14	13	5	11	95	16	4	21	19	21	7	15	103
7	30	7	17	17	26	6	8	111	12	1	17	10	11	2	10	63
8	21	3	14	25	27	7	11	108	18	2	13	8	11	4	14	70
9	18	2	11	20	17	4	7	79	17	3	10	11	10	3	12	66
10	17	2	22	23	14	9	10	97	15	1	11	13	16	4	16	76
평균	21.5	3.5	18	20	17.4	5.1	9.2	94.7	15.9	2.6	13.5	12.3	14.6	4.2	13.5	76.6
편차	4.1	1.9	4.9	4.5	5.1	2.3	2.2	9.8	3.4	1.3	3.8	3.2	3.6	1.6	2.4	12.3

〈표 5〉도 앞선 〈표 3〉의 연장선상에서 친교 관계의 수준이 다른 두 집단 간 비유창성 발생 결과이다. 앞선 두 집단과 마찬가지로 두 집단 간 비유창성 발생 빈도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즉 이들 두 집단은 화제를 상정하고 대화를 전개했지만, 결과는 화제를 상정하지 않고 대화를 전개한 집단과 비슷한 양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유창성 발생 유형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친교 관계의 수준이 높다고 상정된 국교B 집단에서 그 빈도가 높게 드러났다. 하지만 '쉼'의 경우는

이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교양A 집단의 '쉼' 횟수가 유의미할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집단과 마찬가지로 친교 관계가 낮다고 상정된 교양B 집단에서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간투사나 발화 겹침과는 다르게 ‘쉼’만이 친교 관계의 수준이 낮다고 상정된 모둠원들 간 잊은 대화 단절에서 오는 공백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과 모둠별 대화 시간과 어절 수는 〈표 6〉과 같다.

〈표 6〉 ‘국교B – 교양B’ 집단의 대화 시간과 어절 수

	국교B		교양B	
	대화 시간	어절수	대화 시간	어절 수
1	5분07초	544	5분01초	502
2	5분00초	522	4분15초	441
3	4분36초	486	4분01초	423
4	5분16초	586	4분19초	414
5	4분59초	505	4분11초	429
6	5분11초	538	4분39초	478
7	5분30초	590	4분06초	423
8	5분32초	596	4분22초	450
9	4분32초	501	4분04초	411
10	5분18초	579	3분59초	409
평균	5분06초	544.7	4분18초	438

화제를 상정하지 않고 대화를 전개한 ‘국교A – 교양B’ 집단과 비교해 보면, 국교B 집단은 전체적으로 평균 어절 수와 비유창성의 발생 빈도수가 간 증가했고, 교양B 집단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본고에서 상정한 화제가 국교B 집단에게는 대화를 조금 더 길게 이끌어 가는 단서로 작용했지만, 교양B 집단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화제가 교육 문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교양B 참여자들에 비해 사범대학 학생들인 국교B 참여

자들의 관심과 인식의 초점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분당 평균 어절 수를 중심으로 두 집단 간 비유창성 발생 빈도수를 검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¹³⁾

t-검정: 등분산 가정 두 집단

	합계	합계
평균	94.7	80.358587
분산	96.6777778	166.84233
관측수	10	10
공동(Pooled) 분산	131.760053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18	
t 통계량	2.7937341	
P($T \leq t$) 단측 검정	0.00599834	
t 기각치 단측 검정	1.73406361	
P($T \geq t$) 양측 검정	0.01199668	
t 기각치 양측 검정	2.10092204	

〈그림 3〉 '국교B – 교양B' 집단 간 통계 검증 결과

앞선 집단 비교와 마찬가지로 어절 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 간 비유창성 발생 빈도는 차이가 없다'로 귀무가설을 두고 t검증하면, 통계량이 '2.79'가 나와 역시 기각된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비유창성 발생 빈도는 차이가 있음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국교B 집단이 교양B 집단보다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상정된 가설과는 차이가 있다.

비유창성 발생 유형에서도 앞선 화제를 상정하지 않은 두 집단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간투사, 발화 겹침, 쉼 등에서 교양B 집단에서 그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상정했지만, 결과는 '쉼'만 그 수치가 유

13) '국교B – 교양B' 집단의 분당 평균 어절 수는 다음과 같다.

	국교B	교양B
평균 어절 수(분당)	106.9	101.9

의미한 정도로 높게 드러난다.¹⁴⁾ 즉 ‘쉼’이라는 비유창성 유형만이 친교 관계의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그 발생 빈도의 수치가 높았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대화에서 ‘쉼’은 간투사나 발화 겹침과는 또 다른 비유창성 유형의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가설에서는 이러한 비유창성 유형들이 주로 허사의 속성을 지니면서 일정한 대화 공백이나 여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고, 아울러 친교 관계의 수준이 없거나 낮은 대화 참여자들 간에서 일정 부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쉼’만이 이러한 적극적인 발화 산출의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비유창성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간투사나 발화 겹침은 적극적인 발화 산출의 틀에서 발생하는 비유창성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화제 상정 여부에 따른 비유창성 발생 빈도와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2에 대한 논의이다. 화제는 대화를 전개하는 데 주요한 기제가 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이러한 화제를 대화를 전개하는 주요한 과제 속성으로 보았다.¹⁵⁾ 따라서 이러한 화제 유무에 따라 대화에서 발생하는 비유창성의 발생 빈도와 유형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먼저 친교 관계가 높다고 상정된 국교A와 국교B 집단의 모둠 간의 결과이다.

-
- 14) ‘쉼’만을 두고 검증한 결과 ‘-4.72’의 통계량이 산출된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쉼’의 발생 빈도는 차이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교양B 집단의 ‘쉼’ 횟수가 유의미할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있다.
- 15) 통상 말하기 과제라고 하면 혼자말하기에서 일종의 문제 해결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기에서의 과제의 다양한 속성과 유형에 대해서는 Anderson, Brown, Shillcock, & Yule(1984/2014)를 참고할 수 있다.

〈표 7〉 '국교A – 국교B'에 대한 비유창성 양상 결과

모둠	국교A								국교B							
	간투	도치	반복	겹침	삽입	수정	쉼	합계	간투	도치	반복	겹침	삽입	수정	쉼	합계
1	23	6	9	13	11	3	6	71	23	4	14	19	13	5	9	87
2	30	9	7	22	9	4	3	84	22	6	26	12	16	1	7	90
3	17	6	7	11	11	2	8	62	16	2	17	25	18	7	10	95
4	23	4	28	21	10	1	10	97	25	2	18	21	16	4	13	99
5	18	7	18	21	11	4	7	86	21	2	16	24	14	3	6	86
6	20	4	9	7	13	5	4	62	22	5	25	14	13	5	11	95
7	16	3	14	18	17	5	4	77	30	7	17	17	26	6	8	111
8	25	7	11	9	21	1	8	82	21	3	14	25	27	7	11	108
9	23	2	14	13	15	2	10	79	18	2	11	20	17	4	7	79
10	19	9	10	17	17	4	9	85	17	2	22	23	14	9	10	97
평균	21.4	5.7	12.7	15.2	13.5	3.1	6.9	78.5	21.5	3.5	18	20	17.4	5.1	9.2	94.7
편차	4.2	2.4	6.4	5.3	3.9	1.5	2.6	11.0	4.1	1.9	4.9	4.5	5.1	2.3	2.2	9.8

국교A는 대화의 화제를 상정하지 않고, 국교B는 대화의 화제를 상정하고 대화를 전개한 집단이다. 비슷한 친교 관계의 수준에 있는 집단들로 화제 상정 유무가 대화 전개상에서 비유창성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가설에서는 화제를 상정하지 않은 집단인 국교A의 모둠들에서 비유창성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표 7〉에서 드러나듯이, 화제를 상정한 집단인 국교B의 모둠에서 비유창성 발생 빈도가 높았다. 아울러 모든 발생 유형에서도 국교B 집단에서 그 발생 빈도가 높다. 이는 화제를 상정한 집단의 모둠에서 화자들 간의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유창성 유형들이 발생했고, 전체적으로 그 발생 빈도도 높게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화제를 상정한 국교B 집단의 모둠에서 나온 대화의 일부이다.

1. A: 근데 저는 근데(반복) 그(간투)+ 갓(삽입)+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것에도 생 각이 있고 된다고 하는 것에도 그것(반복)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어요.
2. B: *응*
3. B: 아(간투), 그래
4. A: 네+
5. B: 어떻게?
6. A: 그러니까 가도 된다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대학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 학생인데+그(간투)+ 고등학교만큼 그렇게 억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리고 수업이 고등학보다 일단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의 그 시간 동안에 화장실을 안 간다. 안 갈(반복) 수 + 안 마렵다(수정) 이것 전체 자체가 *조금* 이상 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일단(삽입) 누구(삽입) 제 친구처럼 물을 마시면은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는 애가 있어요.
7. B: *음(간투)*

(중략)

21. B: 생리적인 문제를 누가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 내 생각에는 문을 열고 닫아야 되잖아 화장실을 가려면은(도치) 그때 시선이 교수님 학생들이 다 저쪽 에 한 번 갔다 오면은 흐름이 깨진단 말이.
22. C: 그건 저도 동의해요.
- 23 B: 그래서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뭐(삽입) 아까 말했던 대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야 된다 오줌도 못 참으면(도치) *뭐*(삽입)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좀 어(간투) 당연히 못 참지 못 참는데 나의 행동이 방해가 누구한테는 방해가 (재시작에 의한 수정) 된다. 요고를 좀(삽입) 알고 있으면은 화장실을 쭈 덜 가 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나는(도치)
24. C: 맞요 *푸흡*

(하락)

화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막힘없이 유창하게 전개되기보다는 더듬거리는 빈도수가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고에서 화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흥미나 화제 그 자체의 난이도 등이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집단 간 검증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분당 평균 어절 수를 통해 집단 간 t 검증이 가능하다.

t-검정: 등분산 가정 두 집단

	합계	합계
평균	78.5	93.19401
분산	120.7222222	93.62735
관측수	10	10
공동(Pooled) 분산	107.1747858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18	
<i>t</i> 통계량	-3.173796762	
$P(T \leq t)$ 단측 검정	0.002628276	
<i>t</i> 기각치 단측 검정	1.734063607	
$P(T \geq t)$ 양측 검정	0.005256552	
<i>t</i> 기각치 양측 검정	2.10092204	

〈그림 4〉 '국교A – 국교B' 집단 간 통계 검증 결과

'집단 간 비유창성 발생 빈도는 차이가 없다'로 귀무가설을 두고 통계 검증하면, 통계량이 '-3.17'로 기각 값을 보인다. 따라서 비유창성 발생 빈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화제를 상정한 집단에서 비유창성 발생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가설의 상정 내용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비유창성 발생 유형에서는 화제를 상정한 집단에서 반복과 삽입 등 의 내용 중심의 실사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¹⁶⁾

16) '두 집단 간 반복과 삽입의 발생 유형은 차이가 없다'를 귀무가설로 두고 검증하면, 각각 통계량이 '-1.97', '-1.81'로 나와 기각치에 해당된다. 따라서 두 유형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설에서 상정한 내용은 수용된다.

이러한 결과는 친교 관계의 수준이 낮다고 상정된 교양A와 교양B 집단 간도 거의 유사하였다. 표면적으로 화제를 상정한 집단에서 비유창성 발생 빈도가 높으며, 발생 유형에서도 전체적으로 교양B 집단에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집단 간 전체 비유창성 발생 빈도와 유형별 발생 빈도는 <표 8>과 같다.

<표 8> '교양A – 교양B'에 대한 비유창성 양상 결과

모둠	교양A								교양B							
	간투	도치	반복	겹침	삽입	수정	쉼	합계	간투	도치	반복	겹침	삽입	수정	쉼	합계
1	17	2	5	13	10	3	11	61	23	2	13	15	17	4	15	89
2	15	3	6	9	16	2	8	59	15	5	10	9	16	2	11	68
3	15	4	9	10	13	4	11	66	18	2	9	11	18	5	17	80
4	12	3	8	11	9	2	9	54	14	3	17	14	14	6	14	82
5	13	1	6	8	10	2	9	49	11	3	14	13	12	5	11	69
6	16	2	5	9	14	1	16	63	16	4	21	19	21	7	15	103
7	14	4	7	9	8	2	13	57	12	1	17	10	11	2	10	63
8	15	3	6	14	11	5	11	65	18	2	13	8	11	4	14	70
9	12	1	11	9	13	4	12	62	17	3	10	11	10	3	12	66
10	11	2	9	8	11	8	7	56	15	1	11	13	16	4	16	76
평균	14.4	2.5	7.3	10	11.4	3.3	10.3	59.2	15.9	2.6	13.5	12.3	14.6	4.2	13.5	76.6
편차	2.2	1.1	1.9	2	2.5	2.1	2.6	4.5	3.4	1.3	3.8	3.2	3.6	1.6	2.4	12.3

<표 8>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화제를 상정한 집단인 교양B 집단의 모둠에서 비유창성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모든 비유창성 유형에서 화제를 상정한 교양B 집단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게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두 집단 간 비유창성 발생 빈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 이는 평균 어절 수를 가지고 집단 간 통계 검증이 가능하다.¹⁷⁾

t-검정: 등분산 가정 두 집단

	합계	합계
평균	59.2	74.87105
분산	20.62222222	143.3475
관측수	10	10
공동(Pooled) 분산	81.98487852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18	
t 통계량	-3.870046837	
P($T \leq t$) 단측 검정	0.000560928	
t 기각치 단측 검정	1.734063607	
P($T \leq t$) 양측 검정	0.001121857	
t 기각치 양측 검정	2.10092204	

〈그림 5〉 '교양A – 교양B' 집단 간 통계 검증 결과

'두 집단 간 비유창성 발생 빈도는 차이가 없다'로 귀무가설을 두고 검증을 하면, 통계량이 '-3.87'로 나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값이 나온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비유창성 발생 빈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 하지만 화제를 상정한 집단에서 비유창성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가설에서 상정한 내용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발생 유형에서는 내용을 가진 실사 위주의 일부 유형들인 반복과 삽입 등이 화제를 상정한 대화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의 내용이 수용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¹⁸⁾

- 17) 두 집단 간 분당 평균 어절 수와 비유창성 발생 빈도는 다음과 같다.

	교양A	교양B
평균 어절 수(분당)	99.6	101.9

- 18) '두 집단 간 반복과 삽입의 발생 유형은 차이가 없다'를 귀무가설로 두고, 통계 검증하면 각각 통계량이 '-4.46'과 '-2.04'로 나와 두 집단 간 이들 유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따라서 가설에서 제시한 내용은 수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상 대화에 드러난 비유창성 현상을 화자들 간의 친교 관계의 수준과 화제 상정의 유무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가설에서는 친교 관계의 수준이 낮거나 화제를 상정하지 않고 대화를 전개한 집단에서 전체적인 비유창성 발생 빈도와 일부 유형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상정했다. 하지만 결과에서는 친교 관계의 수준이 높거나 화제를 상정한 집단에서 비유창성의 전체적인 발생 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일부 발생 유형에서는 친교 관계가 낮거나 화제를 상정한 집단에서 그 발생 빈도가 높았다. 가령 비유창성 발생 유형에서는 ‘쉼’만이 친교 관계가 낮은 집단에서의 발생 비율이 유의미한 수치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쉼’이 친밀 관계가 낮은 화자들 간의 대화 단절이나 공백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반복, 삽입 등과 같은 일부 내용을 수반하는 실사 위주의 비유창성 유형 발생 빈도 역시 가설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화제를 상정한 집단에서 그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대화라는 담화에서 비유창성 문제는 다른 담화와는 차별적으로 접근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친교 관계가 높고 화제를 상정한 집단에서 비유창성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은 화자들 간의 활발한 소통의 결과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자 말하기에서의 비유창성과는 다르게 접근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2. 교육적 의의

밀하기에서 비유창성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화자와 청자, 맥락, 화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비유창성 발생에 관련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유창성을 발생시키고, 이는 심각하게는 화자의 심리적 불안과 소외, 소통의 격차와 단절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말하기에서의 비유창성은 일정 부분 교육적인 조치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대화라는 담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대화라는 담화는 다른 담화와 다르게 실시간 화자 상호간에 직접적인 교섭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유창성의 발생도 혼자 말하기 담화와는 다르게 더 복합적이면서도 복잡한 모습을 떨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화에서의 비유창성 현상은 다른 혼자 말하기의 담화보다 접근 방법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그런 점을 감안하며, 우선 대화에서 비유창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대화 참여자들 간의 관계와 대화 화제로 상정하고, 이들 두 요인이 대화의 비유창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상당수의 대화 말뭉치 자료를 수집, 전사하였고, 일정한 검증 절차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였다.

직관적으로 대화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화제가 상정될수록 비유창성의 발생 빈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의 조사 결과는 일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화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 관계가 형성될수록 비유창성의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 이는 대화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비유창성은 대화의 장애로 작용하기보다는 화자들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말 특유의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 담화에서의 비유창성의 문제는 주로 일부 청자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혼자 말하기에서 제기되는 화자의 불안한 심리 상태의 표출이나 소통 장애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대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불안 심리나 소통 장애에서 오는 비유창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화에서의 비유창성은 화자들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나 의견 충돌의 긍정적인 면도 결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말하기에서의 비유창성은 부정적인 측면을 갖는 동시에 대화라는 담화에서는 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말 특유의 현상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

는 대화 담화에서의 비유창성은 그것이 지니는 부정적인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소통 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놓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교육 현장 대화 지도에서의 비유창성은 이러한 이중적 측면의 속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비유창성의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한 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고는 말하기에서의 비유창성이 자칫 언어 장애나 불안의 조음이나 심리 문제로만 다루어 질 것을 대화에서는 오히려 입말 특유의 언어 투식(register)과도 일정 부분 관련될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V. 마무리

본고는 친교 관계와 화제 유무에 따른 대화 비유창성을 현상을 고찰하였다. 두 가지 연구가설을 상정하고 대화에 드러나는 다양한 비유창성 현상을 수집된 대화 말뭉치를 통해 살펴보았다. 대화에서 화자들 간의 관계와 화제는 대화를 전개하는 데 주요한 인식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관계와 화제는 대화를 유창하게 만드는 데 일정한 기여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서는 친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화제가 상정되지 않은 대화가 반드시 비유창한 현상을 더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는 말하기에서 비유창성이라는 현상이 몇몇 말하기의 전개 단서나 기제에 얹매여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쉼’의 경우는 친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집단에서 그 수치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아울러 삽입이나 반복 등의 실사 중심의 비유창성의 경우는 화제를 상정한 집단의 대화에서 그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하지만 전체

적으로 비유창성의 빈도수는 가설에서 상정한 내용과는 다르게 친교 관계의 수준이 높거나 화제를 상정한 집단의 대화에서 높게 나와 대화에서의 비유 창성 발생은 혼자 말하기에서의 비유창성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대화 담화를 중심으로 비유창성의 발생과 유형을 검토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규모 대화 말뭉치를 중심으로 비유창성을 현상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론적 성격의 논의이다. 아울러 대화에서 비유창성 발생은 다양한 맥락에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의 친교 관계와 대화 화제를 중심으로만 그것의 발생 빈도와 유형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남긴다.

* 본 논문은 2018. 7. 31. 투고되었으며, 2018. 8. 2. 심사가 시작되어 2018. 9. 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수형·전희숙·권도하(2012), 「학령전 아동의 담화 유형에 따른 비유창성 특성」, 『언어치료연구』 21(3), 53-68.
- 김태경·이필영(2007), 「유창성 요인으로 본 말하기 능력」, 『한국언어문화』 34, 25-44.
- 남길임(2011 ㄱ), 「담화 유형에 따른 한국어 비유창성 현상 연구」, 『텍스트 언어학』 30, 45-72.
- 남길임(2011 ㄴ), 「구어 비유창성 현상의 주석 체계 연구」, 『담화와 인지』 18(3), 115-138.
- 문지은·권도하(2015), 「학령기 아동의 학년별 말 속도 및 비유창성 특성」, 『언어치료연구』 24(1), 113-121.
- 신명선·안종복·남현욱·권도하(2005), 「혼자 말하기에서 정상 아동 및 성인의 비유창성 특성에 관한 연구」, 『음성과학』 12(3), 49-57.
- 신문자·한숙자(2003), 「정상 성인의 말속도 및 유창성 연구」, 『음성과학』 10(2), 159-168.
- 심홍임(2005), 「정상 성인의 비유창성 특징과 말 속도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nderson, A., Brown, G., Shillcock, R., & Yule, G. (2014), 『보국어 말하기 교육』. 김지홍·서종훈(역). 펴주: 글로벌콘텐츠(원서출판 1984).
- Bloodstein, O. (1987), *A handbook on stuttering*, Chicago, IL: Easter Seal Society.
- Bortfeld, H., Leon, S. D., Bloom, J. E., Schober, M. F., & Brennan, S. E. (2001), "Disfluency rates in spontaneous speech: Effects of age, relationship, topic, role and gender", *Language and Speech* 44, 123-147.
- Brennan, S. E. & Schober M. F. (2001), "How listeners compensate for disfluencies in spontaneous speech",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4, 274-296.
- Levelt, W. J. (1999), Producing spoken language: A blue print of the speaker, In Colins M. Brown & Peter Hagoort(Eds.), *The Neurocognition of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ickley, R. J. (1994), *Detecting disfluency in spontaneous speec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 McCarthy, M. (2010), 『입말, 그리고 담화 중심의 언어교육』, 김지홍(역), 펴주: 경진(원서출판 1998).
- Perkins, W. H. (1984), Techniques for establishing fluency, In W. H. Perkins(Ed.), *Stuttering disorders*, New York, NY: Thieme -Stratton.
- Ryan, B. (2001), *Programmed therapy for stuttering in children and adult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Tannen, D. (2007), *Talking voi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ee, J. E. F. (1995), "The effects of false starts and repetitions on the processing of subsequent words in spontaneous speech",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4, 709-738.

대화의 비유창성 현상 고찰 — 화제 상정 여부와 관계 수준의 정도를 중심으로

서종훈

본고는 대화에서 친교 관계와 화제 유무에 따른 대화 비유창성을 현상을 고찰하였다. 두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대화에 드러나는 다양한 비유창성을 수집된 대화 말뭉치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에서는 친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화제가 상정되지 않은 대화가 반드시 비유창한 현상을 더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는 말하기에서 비유창성이 라는 현상이 몇몇 말하기의 전개 단서나 기제에 얹매여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서 ‘쉼’의 경우는 친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집단에서 그 수치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아울러 삽입이나 반복 등의 실사 중심의 비유창성의 경우는 화제를 상정한 집단의 대화에서 그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유창성의 빈도수는 가설에서 상정한 내용과는 다르게 친교 관계의 수준이 높거나 화제를 상정한 집단의 대화에서 높게 나와 대화에서의 비유창성 발생은 혼자 말하기에서의 비유창성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대화 담화를 중심으로 비유창성의 발생과 유형을 검토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규모 대화 말뭉치를 중심으로 비유창성을 현상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대화에서 비유창성 발생은 다양한 맥락에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의 친교 관계와 대화 화제를 중심으로만 그것의 발생 빈도와 유형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남긴다.

핵심어 대화, 유창성, 비유창성, 관계, 화제

ABSTRACT

A Study on the Phenomena of Conversation Disfluency

—Focusing on Topic Introduction Status and Degree of Relationship

Suh Jonghoon

This paper examines the phenomenon of conversational disfluency from the viewpoint of friendship and topics. Two research hypotheses were proposed, and various disfluency phenomena occurring in conversation were examined through a collected corpus conversation. The results did not reveal that conversations between people who were not friends or conversations that were not talked about necessarily led to disfluency.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phenomenon of disfluency does not arise from the tacit knowledge of some speech information.

In this survey's results, a 'pause' held a significant value in the group in which no friendship relationship had been formed. In addition, in the case of contents-centered words disfluency such as insertion or repetition, the number of occurrences was high in the conversation of the group that had assumed a specific topic. However, in general, the frequency of disfluency is higher than hypothesized when the level of friendship is high, or conversation is high in conversation group, and the occurrence of disfluency in conversation differs from that which occurs speaking alone .

This paper discussed the phenomenon of disfluency focusing on small conversational corpus in the context of lack of discussion on the occurrence and type of non - In addition, although the occurrence of disfluency in a conversation is influenced by various contexts, this study faces certain limitations in that it examines the frequency and type of its occurrence mainly in the communicative situation and conversation of the participants.

KEYWORDS Conversation, Fluency, Disfluency, Relationship, Topic